



趙 源 振
 <三星電機(株)特許廳代理>

工業所有權制度的 發祥地(上)

I. 서울 출발

'89년 5월 24일. 「19시40분 KL866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실 분은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항내 안내방송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몹시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기 시작하였다. 研修團의 리더를 따라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며, 네덜란드항공 KLM 보잉747에 몸을 실었다. 團員들은 이동에 따른 모든 것을 대형 에어버스에 맡기고는 이번 研修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김포를 출발하여 북미 앵커리지를 거쳐 암스테르담에서 한숨 돌린 후 다시 스위스항공으로 갈아타고 첫 목적지인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도착하였을 때는 현지시간으로 5월 25일 오전 10시10분. 장장 24여시간의 긴 여정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團員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II. 스위스 제네바 도착

5월 25일. 제네바는 레만호를 중심으로 발달한 조그마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國際

機構가 모여있고, 여러 나라의 人種들이 활동하는 그야말로 國際都市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맑은 햇살이 비친 이날은 본 研修團의 방문을 환영하는지 유럽날씨 답지않게 쾌청하여 이번 研修의 프로그램이 순조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1. 世界知的所有權 機構(WIPO)

5월 26일(金) 아침. 첫 방문처인 WIPO에 도착하여 세계知的所有權의 총 본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은 건물은 외형상으로도 知的所有權의 본부이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건물 1층 출입구 중앙 로비에는 모자이크 형식의 명각이 멋지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 WIPO의 이름답게 어떻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1) WIPO의 機能과 活動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英語의 약칭이며,佛語 및 스페인語로는 OMPI, 러시아語로는 BONC라고도 부르는데, WIPO는 1967년 7월 14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조인된 條約에 의하여 설립되어 197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1974년 UN의 전문기관 중의 하나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WIPO의 설립목적은 크게 知的所有權의 保護獎勵 및 관련 동맹국간의 행정협력 증진등을 들을 수 있는 바, 이번 研修團이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는 WIPO의 국제사무국이 위치하여 각 동맹의 행정을 통괄하고 있었다.

WIPO의 산하동맹 및 條約은 파리동맹을 비롯하여 부다페스트條約등 12개가 있으며,

WIPO의 회원국 수는 '89年 3月 8日 현재 韓國을 포함하여 123개국에 가입되어 있고, 그 자격은 國際聯合 또는 國際聯合과 제휴관계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국제원자력기관의 가맹국 및 WIPO총회에서 WIPO협약 당사국으로 초청된 국가등이다.

본 研修團이 방문한 WIPO의 국제사무국 조직은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현재 약 3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차장은 3명이며, 선진국에서 13명,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77명 및 공산권 국가 등에서 파견나와 각국 담당 주재근무를 하고 있었다. 韓國에서는 金준규 特許廳 國際協力課長이 파견나와 있었으나, 본 研修團이 방문하였을 때는 컴퓨터 집적회로보호회의에 참석차 美國 와싱턴에 출장가고 없어 WIPO에서의 韓國의 위치 및 활동등 많은 것을 물어보고 오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한편, WIPO의 재원은 가맹국으로부터의 기탁금과 國際登錄業務에 따르는 제반수수료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기탁금은 파리, 베른 및 IPC 동맹 등의 가맹국을 7등급으로 구분하여 선진국은 5,000 SFR/年, 개도국은 2,500 SFR/年을 기탁하고 있으며, 그중 韓國은 전체의 0.3%, 北韓은 전체의 0.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활동

WIPO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인 바,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신용도 향상, 외국의 特許技術 획득여건 개선, 商標 및 서어비스표의 개선·보호등을 통하여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향상 및 特許문헌에 수록된 기술정보를 손쉽게 값싸게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WIPO는 特許情報 서어비스 일환으로 선행기술을 조사 서어비스하고 있는데, 조사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東獨, 西獨, 日本, 소련, 스웨덴 및 스위스 등이다. 이에 대하여 韓國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西獨 및 日本등으로 부터 조사 서어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특정 特許문헌의 복사 서어비스는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인도, 소련, 스페인, 스위스, 英國 및 美國 등이 무료로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3) 韓國과 WIPO의 관계

韓國은 '79年3月1日 81번째로 WIPO가맹국(Class VI)이 된 후 '80. 5월 4일 파리협약에 가입하고 '84年8月10日에 PCT동맹에 가입하였다.

한편 WIPO는 韓國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審査官의 해외연수 지원, 국내 工業所有權 관계법 改正에 관한 자문, 特許廳 現代化 計劃에 대한 지원 및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협력(종전에는 분기별로 20건씩 신청토록 되어 있었으나 '89년부터 총 80건이 할당되어 있으며, 80건 외에도 수시로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등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특히 여의도에 위치한 國際特許研修院(IIPTI) 개원때에는 기자재등 \$60,000을 지원하였을 뿐만아니라 '88年 7月에는 特許廳 행정 및 정보 전산화에 관하여 자문 및 기본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고 하는 바, 이제 韓國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가속화 하여 지원받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력하여 한 단계 앞선 工業所有權 문화를 창출해 놓아야 할 것이다.

WIPO에서의 마지막 세미나는 동구권을 대표하는 「소련의 特許制度」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어, 상세내용을 생략기로 하겠으나, 소련은 '88年 12月에 特許法 全面 改正을 위한

초안을 마련, 금년 7월경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전망이라고 담당자는 전하였다.

III. 獨逸 뮌헨 도착

5월 28日(日).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두번째 방문국인 獨逸로 떠나기 위해 團員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뮌헨으로 가는 첫 비행기(07:40분발)를 타기 위하여 첫 방문지인 스위스 제네바를 뒤로 하고 예정된 비행기(스위스항공, SR552편)를 탑승하고 있었으나, 잠시후 기장으로 부터 안내방송이 있었다. '본 비행기는 통신고장으로 출발할 수 없으니 공항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재탑승하라는 방송이 없었다.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비행편과 노선을 바꿔 이동하게 되었다. 프랑스항공을 이용하되 쥘리히를 거쳐 뮌헨으로 가도록 되었다. 제네바에서 1시간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던 곳이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 지연된 14시 10분에 도착하여 하루를 거의 버리다시피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식 일정이 없는 일요일에 발생한 것이었다.

뮌헨은 제네바와는 달리 獨逸의 3번째 도시답게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임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다. 도시의 건축양식 및 도시거리의 이름을 보아서도 말이다. 또한 유럽은 기후사정이 썩 좋지 않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으나, 필자도 뮌헨에 머물면서 이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뮌헨에 머무르는 4박5일중 태양을 볼 수 있었던 날은 도착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비가오거나 질게 흐린날 뿐이었으니 말이다.

1. VOSSIUS & PARTNER 특허법률사무소 訪問

5월 29日(月) 아침. 뮌헨에서의 첫 번째 방문처인 VOSSIUS & PARTNER 特許法律事務所를 방문하였다. 소장 보시우스박사를 비롯하여 모든 파트너 辨理士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사무소는 韓國의 단독주택 처럼 생겼으나 그보다는 훨씬 큰 3층 건물

이었다. 창립은 1961년에 되어 현재 7명의 獨逸 및 EPO辨理士를 비롯하여 4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OOM 1실에 1~2명만이 근무토록 되어 있어 韓國과는 대조적이었다.

또한, 이 사무소는 STN(Scientific Technical Network)라는 獨逸特許情報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特許情報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용하고 있었다.

세미나중 獨逸의 우수 기업체인 Siemens사와 BMW사의 出願건수를 검색하여 보았다니 당일 현재 Siemens社가 총 48,520건, BMW社가 2,198건이었다. 특히 세미나에서 獨逸은 1987년에 實用新案法을 改正하여 化學분야의 조성물등도 實用新案의 대상이 된다고 주지시켜 주었다.

오후에는 VOSSIUS박사의 점심 정찬에 초대되어 獨逸 음식의 정수를 맛보기도 하였다.

2. 獨逸 特許廳(GPO)

5월 30日(火) 아침. 구름이 질게 깔린 가운데 獨逸特許廳을 방문하여 獨逸特許廳長과 차장 및 관계자로부터 獨逸特許廳의 기구 및 獨逸特許制度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몇개 부서를 직접 견학하기도 하였다.

獨逸特許廳은 법무성 소속으로 1877년에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총 2,500여명, 審査官은 약 6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조직은 크게 5국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지청은 베를린지청이다.

제1국은 特許에 관한 審査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2국은 情報 및 문헌, 서류분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3국은 商標, 實用新案, 法律, 訴訟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4국은 관리국으로 행정 및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국은 電子·情報 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기 5국 1지청 외에도 별도로 職務發明 중재원 등이 있는바, 이는 1년에 120여건에 달하는 職務發明에 관한 紛爭仲裁를 처리하고

있고, 중재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법원에 제소토록 되어 있으며, 職務發明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職務發明法을 근거로 紛爭을 중재한다고 한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韓國發明特許協會 조사부나 필자에게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獨逸내에 出願되고 있는 사항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權利別로는 特許가 연간 약 43,000여건 정도, 實用新案이 약 15,000여건정도, 意匠이 약 5,000건 정도이며, 商標는 약 30,0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日本이 연간 약 3,700여건 정도로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약 2,000건 정도로 美國, 스위스, 이탈리아 순이었다.

産業分野別로는 機械分野가 29.3%로 가장 많으며, 일반 엔지니어링분야가 23.2%, 電氣분야가 18.9%, 化學분야가 16.7%, 物理분야가 11.9% 등이다.

한편 獨逸에서의 審査期間은 出願日로부터 약 2년5개월정도 걸리며, 化學조성물 등이 實用新案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改正 實用新案法이 1987년 1월부터 발효된 뒤부터는 實用新案 出願건수가 전년도보다 약 40%정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세미나 및 설명회가 끝난후 審査官의 審査현황을 견학하였는 바, 審査官은 1명마다 전용실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행하여야 하는 審査官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업무분위기였다고 사료되며, 마침 방문할 시점에 審査官(Mr. Hüsing)은 기출원한 건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있어서 獨逸에서의 선행기술 검색시스템을 설명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審査官은 자기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이 데이터베이스 처리된 기계적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다. 기타 더 보고 듣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으나 다음 일정으로 인하여 獨逸特許廳 옆에 있는 유럽特許廳으로 우리는 향하였다. <계속>

新 刊 案 內

新 特 許 法

저자: 辨理士 南 啓 榮 외 3人

규격: 국판 512면

가격: 8,300원

工 業 所 有 權 法 要 解

저자: 辨理士 金學濟 · 金延洙 공편

규격: 국판 734면

가격: 9,000원

特 許 法 精 解

저자: 兪 東 浩(特許廳 事務官)

규격: 신국판 600면

가격: 12,000원

商 標 法

저자: 辨理士 李 秀 雄

규격: 국판 552면

가격: 9,500원

國 際 工 業 所 有 權 法

저자: 辨理士 金 永 吉

규격: 4·6배판, 1,664면

가격: 74,000원

改 正 版

商 標 法 解 說

저자: 金 寬 衡(本會 研修部長)

규격: 국판 480면

가격: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51-5571~2